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키오로시 패층

헤이세이 십사년 삼월 십구일 지정

키오로시 패층은 지바현 북부에서 이바라키현 남부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자이시 키오로시에서 최초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혀졌습니다.

이 패층은 약 십이만년전의 지층으로 인자이시를 포함한 관동평야는 그 무렵 "고(古)동경만" 이라고 불려진 큰 내만(内灣)이었으며 바다의 파도와 조류에 의해서 조개껍질이 모여져 퇴적된것이 키오로시패층입니다.

여기에서 볼수있는 조개화석으로 수로 많은것은 타마키조개, 바카조개, 키오로시 바지락, 사라조개, 마매우라시마고동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밖에도 카시판성게도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조개류와 동일한 종류가 현재에도 해안이나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키오로시패층은 당시의 얕은 바다에 퇴적된 퇴적구조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관동평야의 지층연구의 단서가 된건이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이유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 '키오로시조개류의 숲'의 역사자료센터에서는 키오로시조개층의 전시의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관람해 주십시오.

※ 위험하므로 울타리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정된곳에서 조개화석의 채취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이와 삼년 팔월
인자이시 교육위원회